

AI기업 광주로 오세요...창업서 출시까지 맞춤형 지원

광주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코엑스에서 AI 스타트업 유치 설명회 수도권 기업·예비 창업자 대거 참석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 큰 관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의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설명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AI 창업 기업의 창업 단계별 성장을 돕고, 기존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출시·고도화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설명회'를 갖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전국 AI 스타트업 관계자와 예비창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AI 투자유치 및 규제해소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지원, 창업교육 및 입주공간 지원 등 9개 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와 스타트업 AI 제품의 제작 또는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AI 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이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AI 기업 투디지트 박석준 대표는 "수도권 AI기업이 대거 참석하는 등 광주에서 추진 중인 AI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설명회였다"면서 "특히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들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지역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알리고 관련 지원 사업의 참여를 높이는 등 AI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이 같은 AI 스

타트업 지원은 물론 기존 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전처리·가공 비용을 지원 받아 AI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 AI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광주 4대 특화 분야를 지원하며, 데이터 전처리·가공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가 필요한 AI 제품·서비스 개발 역

량을 갖춘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AI 데이터 전처리·가공 서비스는 정형·비정형(영상·이미지) 데이터를 AI 모델 설계 조건에 맞게 추출·정제하는 전처리 작업과 최적의 AI 모델 도출을 위해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하여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처리·가공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공급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제출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AI 분야의 데이터 전처리·가공 전문기술(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보유한 기업들이 데이터가 필요한 AI 제품·서비스 개발 역량 (인력, 인프라 등)을 갖춘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다.

AI 서비스 창출 핵심 요소인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가공, 유통, 분석 활용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 소재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중 4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aica-gj.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 인공지능 기업들이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데이터 수집 후 정제·변환·증강하는 전처리 작업과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라벨링 작업 등 가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 출시와 고도화가 가속화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티슈·종이컵 등 19개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행락철(5-6월)을 맞아 일회용 위생용품 품질규격 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개인의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식품과 식기류에 사용되는 세제를 포함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위생 물수건, 화장지 등 19개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과 함께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다소비 품목인 종이컵, 물티슈, 젓병 세척제, 유아용·요양시설 납품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특히 다소비 유통 제품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및 검사항목 등을 위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위생용품별 기준·규격에 따른 일반세균, 비소, 납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다. 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인숙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특정 시기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응모하세요

광주시 8-9일 모집...1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산단단지 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응모할 사업체를 오는 8-9일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 15개 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 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1개 사업체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하되, 참여신청 사업체수와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 조정이 가능하다.

대상은 현재 지역 산업단지 상시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현장실사와 심의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업체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만 광주시노동정책관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설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영세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야기가 있는

광주 향토음식 사진전

1~10일 시청 시민홀

광주시는 "1일부터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광주 향토음식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새빛고을전통음식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 대표 7마와 계절별 대표 향토음식 67점 등 총 74점의 향토음식 사진을 전시한다.

'향토음식 사진전'은 잊혀져 가는 지역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화된 자료를 활용해 음식에 대한 재료, 만드는 방법 등 음식에 얽힌 사연을 시각화한 자료로 전시한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7마인 송정리향토떡갈비, 무등산보리밥, 오리탕, 계절한식, 상추튀김, 육전, 주먹밥을 소개하고, 광주 향토음식을 계절별로 공간을 구성해 특색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15개기관, 창업기업 제품 실증·자금·홍보 돕는다

상반기 창업지원 거버넌스협의회

광주시 등 15개 기관이 창업기업 돕기에 나선다.

광주 창업지원 거버넌스협의회는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상반기 회의를 열고 협업 방안을 공유했다.

협의회에는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관기관협의회와 연계해 반기마다 회의를 연다.

광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상용화 직전 제품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창업지원 유관기관 협업프로그램인 '예비-초기-도약 브릿지 IR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사례 및 전략, IR 작성법 등을 교육한다. 상품 발굴과 입점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하는 마켓 챌린저 품평회 '유통채널 Meet-up Day'를 운영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4일까지 창업초기사업



화 자금지원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 주거시설 입주자 모집 계획을 공유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창업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대학의 행사 참여와 지속적인 후속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홍보를 요청했고, 광주연합기술지주와 전남대기술지주는 현재 운용중인 창업기업 투자펀드에 대해 설명하

고 유망한 투자유치 의향 기업 추천을 당부했다.

대학창업보육센터협의회를 포함한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대학들도 지역 혁신기관 연계형 제조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 등 홍보와 AI 창업기관간 협업 등을 요청했다.

주재희 광주시경제창업실장은 "창업 성공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라면서 "창업 지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